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행복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단기 4343년 (음력 10월 3일)

## ‘청목회 수사’ 칼바람... 정국 급랭

### 검찰, 압수수색 이어 이번주 보좌관 소환 조사 野 “국회 말살” 반발... 與도 “과잉 수사” 불만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11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검찰과 정권 압박이 연말 정국에 급랭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연말 예산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과법동의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가 국회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이 정치권과 검찰 간 전면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주부터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를 본격 소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국회에 대한 정적 선포’라고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데 이어 ‘대포폰 의혹’을 포함한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경남도당 당원체육대회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야당을 말살하고 있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를 안하고, 의회를 짓밟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의도 정치를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의 구테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와 긴급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검찰과 여권에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는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의한 고도의 기획사건”이라며 “폭거 책임자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8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의혹이 있으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안상수 대표도 측근들에게 “과잉수사 아니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실부 검찰의 압수수색이 국회를 들추서 연말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검찰개혁, 특히 검찰권의 견제를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박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폐막

제8회 광주비엔날레가 7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13·16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31개국 134명의 작가가 참여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양동시립미술관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현대 미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유료관객 33만여명이 전시장을 찾았고, 시민 참여프로그램인 ‘만인보+1’이 마련된 25곳의 전시장에도 관람 행렬이 이어졌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세계적인 작가들도 광주비엔날레의 규모를 보고 놀라움을 표했다”며 “시민의 노력이 모여져 광주비엔날레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제1회 광주·전남 초·중·고등 영어평가대회



초·중학생 자녀들의 영어실력을 키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광주일보와 한국토익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영어교육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광주·전남 초·중·고등 영어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ETS와 연계, 28년간 한국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내 최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와 YBM-sisa 가 시험 전과정을 총괄, 최고의 공신력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20여명에게 1개월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시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성적분석표와 전국 순위, 상관관계표를 통한 TOEIC 예상점수 예측 등이 상세하게 분석돼 개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고 TOEIC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원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접수일자 : 11월 15일 ~ 12월 6일
-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 대상 : 광주·전남 초·중·고등(초1학년~6학년, 중1학년~3학년)
- 경시대회 일자 : 12월 19일(일) 오전 10시
- 경시대회 장소 : 광주·전남 27개 고사장 (추후통보)
- 평가 과목 및 참가비  
초등부 - JET (22,000원)  
중등부 - TOEIC bridge (29,000원)
- 특 전 : 시·군·구별 성적우수자 뉴질랜드 1개월 어학연수/장학금
- 문의 : 광주일보사 062-220-0555

光州日報社

###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행정학과 80명  
- 광주캠퍼스 (45명, 공공행정 및 경찰행정전공)  
- 남원캠퍼스 (20명, 공공행정), 여수캠퍼스 (15명, 공공행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 11. 10. (수) ~ 11. 24. (수)  
- 전형방법 : 심층면접 - 면접일시 : 2010. 11. 27. (토) 10:00 ~ 18:00
2. 제15기 최고정책과정 : 50명 내외  
- 모집대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홈페이지 참조)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1. 15. (월) ~ 2011. 2. 18. (금)
3. 기타 문의사항 : - 행정대학원 행정실 : ☎ (062)530-5196, 2277  
- 홈페이지 : http://cnugpa.kr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백양사 만산휴업  
입동(立冬)인 7일 장성 백양사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산들이 오색단풍으로 질게 물들면서 초겨울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 백양사 일대는 단풍 나들이 인파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 삼호드림호 광주출신 선장 등 24명 피랍 217일만에 전원 석방

### 한국인 5명 13일째 귀국

지난 4월 4일 인도양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2만4급 원유 운반선 ‘삼호드림호’ 선원 24명 전원이 217일 만에 석방됐다. (관련기사 2·6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6일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56·광주 출신)씨 등 한국인 선원 5명과 필리핀인을 포함한 24명 전원이 석방된 뒤 청해부대 ‘왕건함’의 호송을 받으면서 제3국 안전지대로 이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한국인 선원 5명은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건강검진을 받고 항공편으로 오는 13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호해운과 해적 측은 6

## 전남도, 신안 도초에 국내 첫 야생동물원

### 2015년까지 1324억 투입 조성

전남도가 ‘동물의 섬’ 만들기 본격 착수한다. 전남도는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94-3번지 일대 219필지(71만4200㎡)를 ‘동물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조성 예정 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5일 공고했다.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갤럭시 아일랜드(Galaxy Islands) 조성 2차 계획’의 하나인 동물의 섬은 기존 동물원 개념을 벗어나 자연환경 속에서 먹이사슬로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야생동물원 조성이 목표다.

예를 들면 코끼리·사슴·기린·산양 등 동물을 풀이 좋고 아프리카 초원지대 밀렵처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환경으로 꾸며 관광객들이 야생 상태로 생활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기존의 동물원처럼 그냥 보고 지나치는 형태가 아닌,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꾸민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324억23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42억7000만원) 외에 2015년까지 도비 1282억1600만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의 사파리·조류관·해양동물관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도비로 중당하겠다는 계획 탓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육지의 동물원과 크게 차별화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배로 1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접하는 ‘동물원’에 대한 관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지적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초당대학교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초당대학교의 빠른 성장. 지역을 넘어 일류대학이 되기 위해 초당대학교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교직원 평가 "종합우수"대학 선정  
2009학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취업률 전국 3위 (1000~2000명 C그룹)  
2010 교육과학기술부 취업률 발표 광주·전남 1위, 전국 8위 [졸업생수기준(다)그룹]

초당대학교 CHODANG UNIVERSITY  
534-701,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1644  
1577-2859 팩스 061. 453. 4567  
www.cdu.ac.kr

www.kgcr.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 11. 04~12. 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6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서접수

각대학원원서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유망학원 창학 60주년 기념특강 “강영우 박사 초청강연”

오늘 오후 1시30분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장소: 전남과학대학 옥실관  
오후 4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장소: 남부대 협동관 대강당

주최: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후원: 광주일보사